

네트웍 구축 전문업체로 부상

(주) 콤텍시스템

만 5년이 갓넘은 짧은 연륜속에서도 모뎀시장을 선도해온데 이어 네트웍 구축 전문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주)콤텍시스템(대표 南錫祐).

기술과 패기, 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마인드를 골고루 갖추고 성실과 약속이행, 유저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전임직원이 불철주야 진력하고 있다.

'83년 9월 자본금 5천만원, 컴퓨터 분야 7명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20여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일에 대한 집념과 나의 회사라는 책임

감으로 멀티플렉서 개발의 개가를 올렸다. 이에따라 창립 첫해의 4개월동안 1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면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 모뎀업계의 선두 자리를 차지해 왔다.

'85년 1월 민간에 대한 정보통신역무제공이 허용되고 87년 6월 그룹망 특례가 인정되면서 제반전산망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효율적인 온라인 네트웍 구축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콤텍은 장비의 개발과 품질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신기술을 적용한 커스터머 네트웍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적인 네트웍을 추진함으로써 국산화를 향상, 통신비용의 절감, 네트웍의 다양화 및 안정된 네트웍시스템 공급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신탁은행, 국민은행, 금융결제관리원 등 금융전산망과 관계되는 은행 및 전담사업자, 철도청,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등에 품질이 제고된 네트웍시스템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시스템화된 조직관리

네트웍 시스템의 원활한 공급 및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매출이 창립 첫



▲ 지난해 4월 국제컴퓨터통신기기전에서의 콤텍전시장

해인 83년 1억원, 87년 50억원, 88년 70억원 올해 목표 100억원의 급성장 가도를 달려온 배경에는 컴퓨터와 통신(C & W)의 결합추세에 따라 모뎀 사업과 정보통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제반여건의 성숙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로 가질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품질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고객 관리, 인적자원의 확보, 전사원의 일체감 형성, 신기술 개발 등이 그 밑바탕을 깔고 있다.

콤텍은 또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원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텍(CODEC), 프린트로닉(PRINTRONIX) 등에 해외기술교육과 분기별로 기술·영업 등에 걸쳐 자체 정기교육 및 정보통신관련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함양시켜 가고 있다.

또한 전사원의 일체감 형성과 활기찬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복리후생과 살아있는 분위기 조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86년 2월 중소기업으로서 갖추기 어려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유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신제품개발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산업 환경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자금으로 5억원을 투입, 이 부문에 중점지원을 강화해왔고 연구인력도 늘려가고 있다.

아울러 수입대체효과를 노릴 수 있고 해외시장 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성능의 고속모뎀 개발과 고품질 네트워크시스템 제공, 경쟁력 있는 수출품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87년 1월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미국 코텍(CODEC)사와 국내대리점 계약을 체결했고 국내 최초로 까다롭

인터뷰 / 南 錫 祐 사장

모뎀에서 다져진 기반 네트웍 구축으로 확장



『저희 회사는 전체 직원이 운영합니다. 외부에서의 콤텍에 대한 인식도가 재산임을 감안해 회사가족 모두가 대표자라는 인식을 갖고 충실한 약속이행, 유저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며 기업과 개인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갑니다.』

'83년 창업한 이래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려온 배경에는 투철한 서비스정신과 주인의식을 실현하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고 말하는 콤텍시스템의 南錫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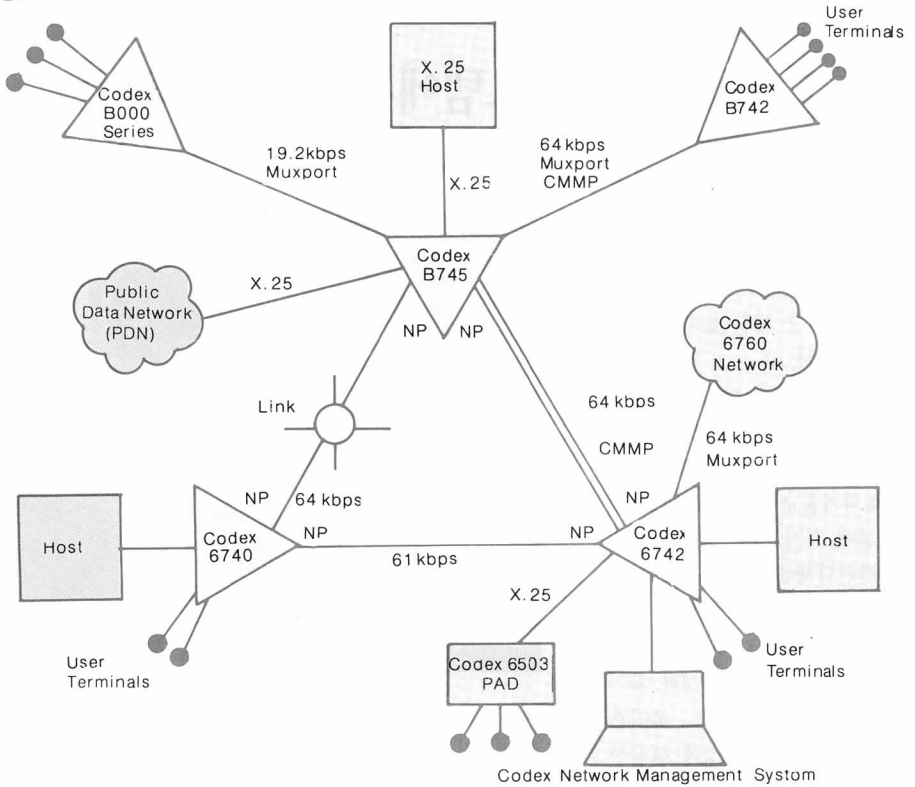
이제 모뎀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의 업체로 성장한 콤텍의 가야할 방향은 데이터통신 분야의 발달에 따른 고급제품의 생산과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백업을 고려한 네트워크분야의 본궤도 진입이라고 南사장은 강조한다.

VAN시장과 PC통신 활성화 전망에 대해 南사장은 낙관하며 비교적 그 시기가 빨리 올 것으로 내다본다.

『조만간에 VAN이 본격 추진되고 PC통신 또한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현재 VAN사업 활성화에 대비한 제품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어 2년 후면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고품질을 요구하는 산업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PC통신 활성화에 대비해 가정용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韓·美간 통신협상을 지켜본 南사장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대처해 나가고 민간단체가 역할정립을 보다 잘해 나간다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토틀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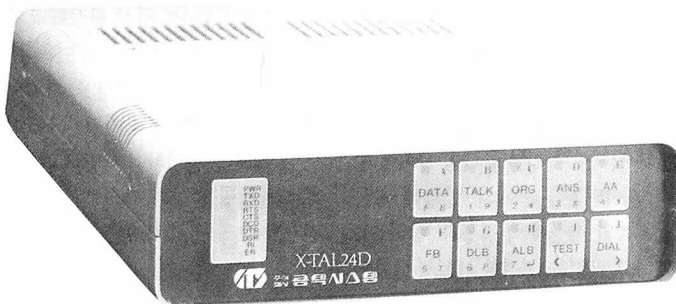


기로 유명한 미국 FCC로부터 다이얼업 모뎀 승인을 획득, 미국시장을 위시한 해외시장의 진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형 소량다품종 생산

콤텍은 외국의 기본모델을 도입, 분석하여 개발한 크리스탈 40/80모뎀을 시작으로 50bps 에서 9600bps 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장점인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정비하고 20여종의 다양한 종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데이터모뎀으로 1200, 2400, 4800, 9600bps 급과 0-19200bps 소트 하울모뎀 (Short Haul Modem), 통계적 멀티플렉서 (Statistical Multiplexer), 멀티라인 어댑터



▲ X-TAL 24D 모뎀

(Multiline Adapter), 포트 셰어링 디바이스(Port Sharing Device) 등이 있다.

이밖에 1200, 2400bps 각종 다이얼업 모뎀과 모뎀 셰어링 디바이스(Modem Sharing Device), 패드(PAD), 데이터 콤프레서(Data Compressor) 등도 주종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다.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

현재 국내시장은 60% 정도가 전용선모뎀으로 해마다 마켓추세가 거의 일정하나 1200, 2400bps 급에서 4800, 9600bps 급으로 고속화 되고 20여개의 생산업체는 마켓세어를 확대키 위해 덤핑도 불사한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콤텍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8월 연간 5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경기도 부천에 설립, 지난 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40

% 신장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고 관공서 금융 일반업체 등에 걸쳐 약 400여군데의 거래처를 확보해 놓고 있다.

'85년 7월 국내 최초로 뉴질랜드에 7만달러의 모뎀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력모뎀인 X-TAL 212A를 개발하면서 미국·캐나다 등지로 판로를 넓히고 특히 미국을 집중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다. '88년도는 25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올해 목표액은 50만달러.

미전자업계 협회인 「Electronic Industries Ass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모뎀 수출액이 '88년 한해동안 5백 95만 6천달러로 집계하고 있다.

이 조사자료를 놓고 볼 때 콤텍은 대미 수출물량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콤텍은 해외 오더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나 원자재·임금상승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지속적인 원화절상과 한정된 국내 수요 등을 감안해 생산개피를 늘리는 문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편, 콤텍은 국내시장이 업체간의 경쟁심화와 다중화장비의 형식승인제 실시, 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 경쟁과 인텔리전트 모뎀화, 로우 엔드(Low End)에서 하이 퀄리티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 데이터통신 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종 모뎀, 멀티플렉서 X-25 프로세서, T-1 멀티플렉서 및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최적·최선의 네트워크 구축(Total Solution 제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89년이 콤텍의 해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

● 용어해설

● 멀티플렉서(Multiplexer)

여러개의 저속단말기로부터 입력을 받아 단일회선으로 동시에 고속전송을 하는 장치. 연결선의 반대편에는 역장으로 고속의 자료전송을 일련의 저속 입력으로 바꾸어 호스트컴퓨터에 제공한다. 한 회선은 여러개의 시간단위로 분할하거나(시분할 다중화,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여러 주파수 대역(주파수 분할 다중화,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으로 분할된다.

● 모뎀(Modem)

모뎀은 변조기(Modulator)와 복조기(Demodulator)를 혼합한 변복조기로 자료처리에 적합한 자료의 형태를 전송장치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또한 컴퓨터와 컴퓨터를 일반전화선에 연결,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컴퓨터 주변장치이다.